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눅 16:1-13)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제자도

권해생(고려신학대학원 신약학)

글을 시작하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는 얼핏 이해가 안 된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기 때문이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함부로 탕감해 주는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한다. 지난 2천 년 동안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었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¹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칭찬이 언급되

1. 비유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그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D. J. Ireland, "A History of Recent Interpretation of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Luke 16: 1-13)", *WTJ* 51 (1989): 293-318. 그리고 아이러랜드의 박사 학위 논문이 출판된 다음의 책을 보라. *Stewardship and the Kingdom of God: An Historical, Exegetical, and Contextual Study of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in Luke 16:1-13* (Leiden: Brill, 2014), 5-47. 좀 더 최근의 연구 역사는 다음을 보라. D. Landry & B. May, "Honor Restored: New Light on the Parable of the Prudent Steward (Luke 16: 1-8a)", *JBL* 119. 2 (2000): 287-309; R. S. Schellenberg, "Which Master? Whose Steward? Metalepsis and Lordship

어 있는 16:8만 해석해서는 알 수 없다 -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기본적으로 아래의 다섯 가지 이슈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비유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

- 비유는 어떤 문맥 속에 위치해 있는가?
- 비유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 청지기가 탕감한 빛이 무엇이기에 주인은 그를 칭찬할까?
- 9절에 나오는 ‘불의의 재물’, ‘그들’, ‘영주할 처소’는 각각 무엇인가?
- 작은 것/큰 것, 불의한 재물/참된 것, 남의 것/너희의 것은 각각 무엇을 뜻하는가?

따라서 본 연구는 여기에 나열한 다섯 가지 이슈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예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비유의 참뜻을 알아보려는 시도다.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최근까지 학자들이 주장한 견해들을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수용 혹은 배제할 것이다. 그리하여 비유의 참뜻이 오늘날의 교회에 바르게 적용되도록 돕고자 한다.

in the Parable of the Prudent Steward (Lk. 16.1-13)”, *JSNT* 30. 3 (2008): 263-88. 이 비유의 해석 역사를 조사한 국내 학자의 자료는 다음을 참고. 최갑중, 『예수님의 비유: 본문, 해석 그리고 설교/적용』 (서울: 이레서원, 2001), 229-60.

I. 비유는 어떤 문맥 속에 위치해 있는가?

본 연구가 한 단락으로 삼는 누가복음 16:1-13의 구성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다. 얼핏 16:9-13은 구별된 단락처럼 보이기 때문이다.² 비유는 8절에서 끝나는데, 9-13절은 뒤에 추가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6:1-13은 하나의 단락으로 일관성이 분명하다. 비유와 비유에 대한 적용으로서 재물이라는 주제가 연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잘 드러난다. 예수의 입을 통해 비유와 해설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복음서 기록에서 그렇게 낯설지 않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에는 군데군데 해설이 곁들여져 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자체 내에서도 이러한 예가 있다(눅 10:25-37; 12:13-21; 18:9-14).³ 그렇다면 본 비유는 어떤 전후 문맥 속에 위치한 것일까?

1. 15장과 의 관계

본 비유(눅 16:1-13)의 앞에는 유명한 세 비유가 나온다. 세 비유 모두 잃은 것(자)을 찾는 기쁨에 관한 비유다(눅 15:1-32).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기뻐하고, 여인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기뻐하고,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찾아 기뻐한다. 이러한 기쁨 이전에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는 자신의 잃은 것(자)을 찾기에 열심이다. 목자와 여인은 찾을 때까지 찾는다. 아버지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와 같이, 세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잃은 영혼을

2. 16:1-8과 16:9-13의 관계에 대해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의 본문이라는 주장에서부터 예수의 말씀과 누가의 해설이 합쳐졌다는 편집비평의 주장까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는 제한된 지면 관계상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 하나의 단락을 위한 간단한 언급만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는 이는 아이러랜드의 글을 참고하라. Ireland, "A History," 299-309.

3. D. L. Bock, *Luke 9:51-24:53*, BECNT (Grand Rapids: Baker, 1994), 1339.

찾는 데 얼마나 열심이며, 잃은 영혼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열심과 기쁨은 누가복음 전체 주제와도 관련이 깊다. 누가복음 요절로 인정되는 19:10은 인자가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한다. 이 구절은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으로 나온다.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비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삭개오를 구원하시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삭개오를 구원하려는 예수의 열심이 돋보인다.⁴ 따라서 본 비유(눅 16:1-13) 앞에 위치한 15장은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인 ‘구원’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5장과 본 비유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주제의 공통점이 있을까? 본 비유는 재물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얼핏 15장이나 ‘구원’이라는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인다.⁵ 그러나 구원과 물질 사용은 관계가 없지 않다.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원받은 자는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달라진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후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한다. 또한 누구를 속여 그의 재물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한다. 원래 율법에는 오분의 일을 더해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민 5:7). 즉 120%를 배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삭개오는 400%를 배상하겠다고 한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뀐다. 재물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 삭개오 이야기 앞, 18장에는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온다(18:18-30). 영생을 구하는 부자 관리에게 예수께서

4. 이 이야기를 흔히 삭개오의 열심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삭개오의 열심보다 더한 예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권해생, 『십자가 새롭게 읽기』(서울: 두란노, 2021), 84-6.

5. 물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의 모습과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 어떤 유비가 있을 수 있다. ‘낭비하다’를 뜻하는 διασκορπίζω가 공통으로 사용된다(눅 15:13; 16:1).

는 그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 하신다. 이를 들던 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예수께서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하신다(눅 18:27).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은 또한 그분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 삶의 변화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다.

이러한 누가복음의 주제가 15장과 16장에 균형 있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15장에서 구원 주제를 다룬 저자는 이제 16장에서 재물 주제를 다루면서, 누가복음이 얼마나 구원과 재물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는지를 알 수 있다.⁶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재물을 나누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2. 16장 나머지 부분과의 관계

구원과 재물의 밀접한 관계는 16장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6장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눅 16:1-13)로 시작해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눅 16:19-31)로 끝을 맺는다. 두 비유는 공통적으로 비유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부를 주제로 하고 있고, 같은 표현으로 비유를 시작한다 - ἄνθρωπος τις ἦν πλούσιος / “한 부자가 있었다”(사역).⁷ 따라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는 사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 자신을 위해서는 화려하게 입고 호화롭게 즐기지만, 정작 자신의 집 문 앞에서 굶어 죽는 나사로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경위는 결국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듣지 않기 때문이다(눅

6. 놀랜드는 15장은 하나님의 주도권과 천상의 기쁨을 강조한 반면에, 16장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한다. J. Nolland, *Luke 9:21-18:34*, WBC (Dallas: Word Books, 1993), 802.

7. J. R. Edwards,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PNTC (Grand Rapids: Eerdmans, 2015), 449.

16:29-31).⁸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아버지’라 부른다. 아마도 자신을 참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모세와 선지자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로지 세상의 쾌락에 도취되었다. 결국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거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눅 16:23).

다른 한편,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 사이에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에게 주는 예수의 교훈이 담겨있다(눅 16:14-18).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돈을 좋아한다. 겉으로는 율법에 따라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 주면서 아내를 버린다.⁹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의 정욕에 따라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고 취한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태도를 비판하시며,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신다(눅 16:16).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그에 합당한 제자도를 보여야 하는데, 특히 재물을 사용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II. 비유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는 비유 자체와 비유의 적용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비유 자체가 어디서 끝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비유 자체가 7절에서 끝나고, 8절부터는 오롯이 예수의 해설로 보는 이가 있다.¹⁰ 따라서 이런 견해를 가

8. Bock, *Luke 9:51-24:53*, 1375-6.

9. J. C. Ryle, *Expository Thoughts on the Gospels: Luke*, vol 2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6), 211.

10. D. E. Garland, *Luke,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Academic, 2012), 638.

진 이들은 8절에 나오는 κύριος를 예수로 본다. 다른 한편, 비유 자체는 8절 상반 절에서 끝나고, 예수의 설명은 8절 하반 절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이가 있다.¹¹ 이 경우 8절의 κύριος는 부자 주인이 된다.

먼저, 8절에 나오는 κύριος는 부자 주인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9절에 예수께서 ἐγώ라고 자신을 지칭하는데, 8절에 κύριος로 등장하는 것은 어색하다.¹² 또한 9절에 나오는 ἐγὼ ὑμῖν λέγω는 다른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비유에서 적용으로 가는 전환 문구로 사용되었는데(눅 11:9; 14:24; 15:7, 10; 18:14), 그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오는 8절의 κύριος는 부자 주인으로 보는 것이 낫다.¹³ 더욱이 비유 안에서 κύριος가 등장하는 다른 용례에서는 모두 부자 주인을 가리켰다(눅 16:3, 5).¹⁴ 엘리스(Ellis)는 18:6을 예로 들면서 앞에 관사가 붙으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를 가리킨다고 한다.¹⁵ 그러나 관사가 붙었는데도 여전히 예수 외에 다른 이를 가리키는 용례가 누가복음에 얼마든지 있다(눅 12:37, 42; 14:23). 이런 점에 비춰볼 때, 8절에 나오는 κύριος는 예수 보다는 부자 주인을 가리킬 것이다. 부자 주인은 그의 청지기가 지혜롭게 처신한 것을 보고 칭찬하였다.

따라서 비유 이야기 본론은 8절 상반 절까지이고, 예수께서 이에 대해 짧게 언급하시는 8절 하반 절까지 첫 단락으로 볼 수 있다.¹⁶ 이럴 경우는 본문의 구

11. A. J. Hultgren, *The Parables of Jesus: A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0), 151.

12. J. B. Green, *The Gospel of Luke*,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7), 593. 그러나 그린은 단락 구분을 1-9절, 10-13절로 본다. 왜냐하면 9절이 4-8절에 나오는 내용과 유비를 이루기 때문이다. 행동에 대한 계획, 위기의 성격, 영접을 받는 것이 유비를 이루기 때문에 같은 단락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한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께서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13. M. D. Goulder, *Luke: A New Paradigm* (Sheffield: JSOT Press, 1989), 621.

14. R. H. Stein, *Luke*, NAC (Nashville: B&H, 1992), 414.

15. E. E. Ellis, *The Gospel of Luke* (London: Oliphants, 1974), 199.

16. 물론 1-8상, 8하-13절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다. F. S. Spencer, *Luke*, THNTC (Grand

조는 다음과 같다.

1-8절 비유 자체

비유 도입(1절上)

비유 본론(1절下-8절上)

비유 결론(8절下)

9-13절 비유 적용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9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에 충성하라(10-12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13절)

이와 같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는 재물 사용에 관한 비유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극히 종말론적이다.¹⁷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문제와 연결된다(눅 16:9).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재물을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곧, 재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Ⅲ. 청지기가 탕감해 준 빛이 무엇이기에 주인이 그를 칭찬한 것일까?

청지기는 주인에게 빛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 그들이 진 빛을 탕감해 준다

Rapids: Eerdmans, 2019), 399. 그러나 8절 하반 절은 부자 주인의 행동에 대한 예수의 설명이고, 9절부터 예수의 적용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본 연구는 1-8절, 9-13절로 나눈다.

17. J. L. González, *Luk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0), 191.

(눅 16:5-7). 기름 백 말을 빗진 자에게 오십이라 쓰게 하며, 오십 말을 탕감해 준다. ‘말’이라 번역된 헬라어 βῆτος는 히브리 측량 수치로서 대략 40 리터이고, 백 말은 4,000 리터의 양인데 1,000 데나리온의 가치에 해당한다(Jos. Ant. 8:57).¹⁸ 청지기는 절반인 500 데나리온을 깎아준다. 또한 밀 백 석을 빗진 자에게는 팔십이라 쓰게 하며, 이십 석을 탕감해 준다. ‘석’이라 번역된 헬라어 κόρος도 히브리 측량 수치로서 요세푸스에 따르면 15 부셀, 즉 25 데나리온에 해당된다(Jos. Ant. 15.9.2). 따라서 백 석은 약 2,500 데나리온의 가치이고, 청지기는 그것의 20%인 500 데나리온을 깎아준 셈이다.

그렇다면 청지기가 탕감해 준 것은 과연 어떤 성격의 빚이었을까? 무엇을 탕감해 주었기에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한 것일까? 전통적으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빗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으로 본다. 청지기는 처음에도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하였고, 위기에 닥쳐서도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탕감하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 그러나 비록 청지기의 행동이 비윤리적이지만, 위기를 모면하는 그의 영민함은 칭찬을 받는다. 미래를 미리 대비하여 재물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는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해석과 달리, 최근까지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안 해석이 나왔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해석을 지지하면서, 이 3가지 대안 해석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청지기가 감면해 준 것을 원금이 아니라 이자로 보는 견해가 있다.¹⁹

18. J. T. Carroll, *Luke: A Commentary*, N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323; I. H. Marshall, *The Gospel of Luke*,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78), 618. 한편, ‘말’과 ‘석’의 정확한 양과 가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여기에 언급된 양과 가치는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것이다.

19. J. Duncan M. Derrett, “Fresh Light on St Luke XVI: I.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NTS*

이것은 청지기를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청지기는 이자를 감면해 주어서 주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출 22:25; 레 25:36-37; 신 23:19). 그래서 결국 빚진 자들이 주인과 청지기 모두에게 고마움을 갖게 만든다.

그러나 주인이 과연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는 사람이었을까? 특히 기름은 100%의 이자를 부과하였다. 원금의 두 배를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의한 청지기라는 호칭 못지않게 불의한 주인이라는 호칭이 붙지 않았을까? 물론 당시의 관행을 언급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한 이자가 동양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²⁰ 그러나 이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청지기가 탕감해 준 것은 사실 그가 받을 수수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²¹ 청지기는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할 방법을 찾는다. 그것은 자기에게 돌아올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빚진 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 이 경우 빚진 자들은 청지기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과연 청지기가 받을 수수료가 그렇게 높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주인과 청지기가 각각 절반을 나눠 갖는 구조였을까? 더구나 청지기가 빚진 자에게 분명히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것은 수수료를 탕감해 주었다는 설명을 무력화시킨다. 주인에게 진 빚이라

7. 3 (1961): 198-219; *Law in the New Testament* (Eugene: Wipf&Stock, 2005), 48-77; Marshall, *Luke*, 618-9.

20. Derrett, *Law*, 71; Marshall, *Luke*, 619.

21. J. A. Fitzmyer,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AYB (New York: Doubleday, 2000), 1101; Bock, *Luke 9:51-24:53*, 1098.

분명히 밝히기 때문이다.²² 또한 청지기가 빛진 자에게 ‘빨리’ 증서를 고쳐 쓰라고 한 것은 주인을 속일 의도, 즉 나쁜 의도가 있음을 암시한다.²³

셋째, 주인의 자비한 성품을 이용하여 청지기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주장이 있다.²⁴ 주인은 그의 소유를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도 그를 즉각 파면하거나 감옥에 가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에게 시간을 주고 청지기 사무 문서를 보자고 한다. 이러한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을 파악하고, 청지기는 빛진 자들의 빛을 탕감해 준다. 빛을 탕감 받은 자들은 주인과 청지기의 너그러운 자비에 탄복하며, 그들을 칭송한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지만,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당시 문화에서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자 좋아한다. 그리하여 주인은 청지기의 영리함을 칭찬한다.

그러나 과연 본문에서 주인이 너그럽고 자비로운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이 감옥에 갈 정도로 중죄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청지기가 감옥에 가지 않은 것이 꼭 주인의 너그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만약 해고된다면, 청지기는 사람들 앞에 큰 수치를 당할 것인데, 과연 주인으로부터 자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누가 복음에서 부자는 주로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한다(눅 1:53; 12:16; 16:19; 18:23; 21:1). 따라서 주인의 자비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은 재고되어야 한다.²⁵

22. Edwards, *Luke*, 454.

23. Garland, *Luke*, 647.

24. K. E. Bailey, *Poet & Peasant and Through Peasant Eyes: A Literary-Cultural Approach to the Parables in Luke* (Grand Rapids: Eerdmans, 1983), 98-102; J. S. Kloppenborg, “The Dishonoured Master (Luke 16, 1-8a)”, *Biblica* 70 (1989): 474-95; Landry & May, “Honor Restored,” 287-309; C. M. Hays, *Luke’s Wealth Ethics: A Study in Their Coherence and Character* (Tübingen: Mohr Siebeck, 2010), 133-4.

25. 굿리치에 의하면, 당시 사회에서 명예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차지하는지도 의문이다. 당

이상과 같이, 대안적 해석들은 난제를 푸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저마다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청지기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 스타인(Stein)이 제기한 의문을 눈여겨 볼만하다.²⁶ 문맥에서 청지기는 계속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²⁷ 철저하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빚진 자들에게 관대함을 베푼다. 다가올 자신의 고통과 수치를 피하기 위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것이라 속으로 독백한다(눅 16:3-4). 그리고 빚진 자들을 불러 주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빚을 자기 임의대로 탕감해 준다(눅 16:5-7). 이윽고 주인은 그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 부른다. 위의 새로운 대안을 주장하는 이들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 그들은 ‘옳지 않은’이라는 호칭은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였기 때문이지,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어서가 아니라고 한다.²⁸ 그러나 문맥은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후가 아니라, 빚진 자들의 빚을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함부로 탕감해 준 후에 ‘옳지 않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대안들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본 연구는 전통적 해석이 여전히 가장 유력하다고 본다.

장 누가복음에서도 명예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에 집중하는 부자들이 나오기 때문이다(눅 12:16-20; 18:18-25). 물론 당시 사람들이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명예와 재물을 둘 다 추구했다고 보는 것이 나올 것이다. J. K. Goodrich, “Voluntary Debt Remission and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Luke 16: 1–13)”, *JBL* 131. 3 (2012): 549.

26. R. H. Stein, *An Introduction to the Parables of Jesus* (Philadelphia: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1), 109-10.

27. 그러나 청지기를 지나치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본 나머지, 주인이 칭찬한 내용마저도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들은 주인이나 예수께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것을 일종의 아이러니로 본다. D. R. Fletcher, “The Riddle of the Unjust Steward: Is Irony the Key?”, *JBL* 82. 1 (1963): 15-30; S. E. Porter,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Irony is the Key”, in *The Bible in three dimensions: Essays in celebration of forty years of Biblical Studies in the University of Sheffield*, ed D. J. A. Clines, S. E. Fowl, S. E. Porter (Sheffield: JSOT Press, 1990), 127-53.

28. Stein, *the Parables of Jesus*, 109-10.

다른 한편,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어렵게 여기며, 다른 대안 해석을 찾으려는 많은 시도들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φρονίμως)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φρονιμώτεροι)”(눅 16:8, 개역개정)

이 구절에서 주인과 예수의 칭찬을 위해 사용된 φρονίμως와 φρόνιμος는 각각 우리말로 ‘지혜있게’와 ‘지혜로운’으로 번역되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당사자의 도덕성을 반드시 수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과송하시며 “뱀같이 지혜롭고(φρόνιμοι)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다(마 10:16). 이때 우리는 뱀의 도덕성을 예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의 도덕성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주인은 청지기의 모든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도 청지기의 모든 것을 지혜롭다고 보지 않는다. 청지기의 말, 행동, 심지어 성품에서 칭찬 받을 만한 것을 일일이 찾아내려는 시도는 비유의 본질에 벗어난 것이다.

본문이 말하는 명백한 표현을 도외시키고 상상과 추측에 근거해 무리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향해 칼빈이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²⁹ 그는 본 비유가 이웃에 대한 자비의 필요성과, 우리가 베푸는 자비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두게 될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29. 스노드그라스도 비유가 말하는 명백한 의도에만 초점을 맞춘다. K. R. Snodgrass, *Stories with Intent: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Parables of Jesus* (Grand Rapids: Eerdmans, 2008), 414.

과 같이 말한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비유의 모든 부분들이 지닌 의미들을 세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내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사변적인 것으로서 부적절할 것임을 알게 된다.”³⁰

요컨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비유는 종말론적 심판을 전제로 한다.³¹ 이것은 9절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다음 질문에 대한 해답 과정에서 설명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간 결론을 맺자면, 결국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도덕성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그의 지혜, 즉 그의 영리함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물질을 사용한다. 물질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다. 자신의 물질이 아니지만, 그 물질을 통해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한다. 이것이 옳지 않은 청지기이지만, 주인이 칭찬한 이유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이 세대 아들들의 지혜를 제자들에게 요구하신다.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다. 물질을 너그럽게 사용하여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다.³²

IV. 9절에 나오는 ‘불의의 재물’, ‘그들’, ‘영주할 처소’는 각각 무엇인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해석할 때, 8절 못지않게 논란이 되는 구절이 9절이다. 이 구절에는 강한 종말론적 성격이 드러나지만, 이에 앞서 각 단어나 표현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있다.

30. 칼빈, 『공관복음』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11), 634.

31. Stein, *Luke*, 414.

32.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함께 지혜의 내용에 들어간다. C. L. Blomberg, *Interpreting the Parables* (Downers Grove: IVP, 2012), 322-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ἐκ τοῦ μαμωνᾶ τῆς ἀδικίας)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눅 16:9, 개역개정)

1. ‘불의의 재물’(ὁ μαμωνᾶς τῆς ἀδικίας)이란 무엇일까?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가리킬까?

예수께서 부정한 수입에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다.³³ 그렇다면, 재물의 기본적인 속성이 불의하다는 뜻일까? 성경은 모든 재물이 다 악하다고 보지 않는다. 재물이 성전을 짓거나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훌륭하게 쓰이는 예가 많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재물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경고한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며(히 13:5),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한다(딤후 6:10). 이런 맥락에서 에이미-질(Amy-Jill)과 위더링턴(Witherington)은 재물이 우리를 불의하게 행동하도록 유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의의 재물’이라 부를 수 있다고 한다.³⁴ 라일(Ryle)은 11절에 비취봤을 때, ‘불의의 재물’은 참된 것과 반대되는 불확실한, 불안정한 재물이라고 한다.³⁵ 스펜서(Spencer)는 9절 자체도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하면서 재물의 유한하고(finite) 영원하지 않은(perishable)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³⁶ 이것은 ‘영주할’(eternal)이라는 말과 대조를 이룬다.

33. Fitzmyer, *Luke X-XXIV*, 1109.

34. Amy-Jill Levine & B. Witherington III, *The Gospel of Luke*, NC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444.

35. Ryle, *Luke*, vol 2, 203. 라일은 참된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불의’의 용례를 소개한다(요 7:18; 살후 2:12).

36. Spencer, *Luke*, 399.

그렇다면 불의의 재물이란 불의한 행동을 유혹한다는 뜻일까, 아니면 재물의 영원하지 않는 속성을 가리키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두 가지는 배타적이지 않다. 재물에는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있기 때문이다. 영원하지 않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를 불의로 인도할 수 있는 재물을 조심하면서, 오히려 그 재물을 사용하여 친구를 사귀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친구는 누구인가?

에드워즈는 천사로 보고,³⁷ 갈랜드는 ‘가난한 자’로 본다.³⁸ 그런데 제자들을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는 ‘그들’이라는 존재는 누구를 가리킬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앞에 나오는 친구를 받는 대명사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친구가 천사라면 그들도 천사고, 친구가 가난한 자라면 그들도 가난한 자를 가리킬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영접하는 장소는 ‘영주할 처소’다. 형용사 *αἰώνιος*가 사용되었는데, 누가복음에 4회 등장한다(눅 10:25; 16:9; 18:18, 30). 이 구절 외에는 모두 ‘영생’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영주할 처소는 구원받은 신자가 거할 영원한 장소, 영생을 위한 장소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이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구제한 가난한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사들이 제자들을 영접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경우 제자들이 불의의 재물로 사귄 친구는 천사들이 된다. 물론 여기서 천사는 곧 가난한 자들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마

37. Edwards, *Luke*, 457.

38. Garland, *Luke*, 651.

18:10; m. 'Abot 4.11)).³⁹ 천사는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간다(눅 16:22).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그들'을 하나님에 대한 완곡적 표현이라 한다.⁴⁰ 물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영원한 처소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명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대명사로, 그것도 복수 대명사로 등장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⁴¹

V. 작은 것과 큰 것,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남의 것과 너희의 것은 각각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세 개의 뚜렷한 대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한다. 예수의 제자는 작은 것/불의한 재물/남의 것을 맡은 청지기이다. 본문에는 계속 강한 종말론적 분위기가 깔려 있다.⁴² 이 세상에서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산 사람은 다가올 세상에서 큰 것/참된 것/너희의 것을 받을 것이다. 개역개정이 '충성된'으로 번역한 πιστός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청지기가 작은 것/불의한 재물/남의

39. Edwards, *Luke*, 457.

40. 스노드그라스는 '가난한 자', '천사', '하나님' 중에 어느 것도 다 가능하다고 하며, 결국 세 가지는 제자들이 하늘에서 영접 받는다는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Snodgrass, *Stories*, 415.

41. 모리스는 하나님이 장엄 복수 형태로 히브리어 성경에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주장한다. L. Morris, *Luke: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8), 273.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이라는 대명사로 등장하는 예를 찾기 힘들다. 특히 모리스는 앞에 나온 '친구(들)'와 '그들'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하나님이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과연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을 친구 삼으라고 말하셨을지 의문이다.

42. Garland, *Luke*, 652.

것을 주인으로부터 맡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청지기의 마땅한 자세는 ‘충성’이다. 각각의 대조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자.

1. 작은 것과 큰 것,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재물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의 백성에게 주실 온전하고 영원한 것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하다. 이 세상의 재물은 썩어 없어질 것으로서 지극히 제한적이며 영원하지 않다. 가변적이며 거짓된 것이다. 인간을 유혹하여 불의한 행동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장차 받을 하늘의 복은 위대한 것이며 참된 것이다.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수의 제자는 이 세상의 재물, 즉 작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신실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

2. 남의 것과 너희의 것

이 세상의 재물을 ‘남의 것’이라 한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다. 모리스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재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강조한다고 한다.⁴³ 사람 주인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너희의 것’, 즉 제자들의 소유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장차 영원한 소유가 제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따라서 제자들은 하늘의 부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한편, 12절에는 사본학적 문제가 있다. *καὶ εἰ ἐν τῷ ἄλλοτρίῳ πιστοὶ οὐκ ἐγένεσθε, τὸ ὑμέτερον τίς ὑμῖν δώσει;*에서 ὑμέτερον(너희의 것)은 두 개의 대문자 사본에서 ἡμέτερον(우리의 것) 즉, 성부와 성자의 것으로

43. Morris, *Luke*, 273.

로 나온다(B, L).⁴⁴ 혹자는 $\acute{\upsilon}$ 와 η 가 비슷하게 발음되기 때문에 이문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아마도 필사가들이 ‘너희의 것’의 뜻을 나름대로 분명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것’(하나님과 예수님의 것)으로 고쳤을 것이다.⁴⁵ 어떤 소문자 사본은 $\acute{\epsilon}\mu\acute{o}\nu$ (나의 것), 즉 예수의 것으로 나온다(157). 그러나 파피루스 사본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문자 사본과 소문자 사본은 아주 명확하게 ‘너희의 것’이라 제시한다(P75 & A D W 등). 즉 참된 하늘의 것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소유로 주셨다는 말이다. 제자들이 이 세상의 재물에 관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되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일시적이며 유한한 것에 너그러울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예수의 비유 중에 해석하기 까다로운 여러 비유가 있지만,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는 그중에 가장 논란이 많은 난해한 비유다. 그러나 난해한 만큼 비유를 바르게 풀기 위해서는 지나친 추측을 배제하고 본문이 명확하게 제시한 것을 토대로 비유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다. 그것은 그가 재물을 사용하여 다가올 심판을 잘 준비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종말론적 심판을 기억하며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앞선 문맥에서 하나님/예수의 사랑과 열심에 따른 구원이 강조되었는데, 16장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44. Edwards, *Luke*, 458.

45. Fitzmyer, *Luke X-XXIV*, 1110.

하는지 제자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 제자도의 핵심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과 재물의 올바른 사용이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고 재물에 대해 옳지 못한 태도를 보인 부자를 반면교사로 내세운다. 부자의 이런 모습은 불신의 열매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내 집 앞의 굶어 죽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삶을 호화롭게 즐기는데 관심이 있다. 이런 사람은 그가 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따라서 누가복음 15장의 구원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종말론적 신앙을 통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이야기로 열매를 맺는다.